

제2절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강한 방송 SBS 출범

1. 민영방송 SBS 설립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새로 탄생할 민영방송 지배주주로 선정된 윤세영 회장은 기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방송 사업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그것은 공보처장관 면담을 통해 국민에게 다짐한 내용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통해 키워왔던 언론 사업 진출과 공익 실현의 오랜 포부를 성취하기 위한 스스로의 결단이었다.

종합 건설 회사 (주)태영을 모기업으로, (주)태영산업, 울산퍼시픽화학(주), (주)태영레저, (주)태영화학 등 5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온 윤세영 회장은 발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는 공인으로서 윤 회장은 두 번째 인생의 분기점을 맞고 있었다.

1933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윤세영 회장은, 1963년 군 제대와 함께 경북 문경군 출신인 이동영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 의원이 정계를 은퇴하자 윤 회장은 삼주개발(주) 상무이사로 발탁되면서 첫 번째 변신을 했다. 윤 회장은 미룡건설 상무이사로 자리를 옮겨 건설사업을 익힌 뒤, 1973년 건설업체 태영개발주식회사를 창립하여 5개 기업군의 토대를 쌓았다.

윤세영 회장은 (주)태영이 지배주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민방사업추진반을 실무팀으로 재편하여 방송사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실무팀은 1991년 중으로 TV까지 개국한다는 계획 아래 치밀한 일정을 수립함으로써 단기간에 방송사 체제로 변신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1990년 11월 7일, 대주주로 선정된 각 기업체 대표들은 현재 SBS 사옥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첫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발기인들은 회사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구

체적인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창립총회에 상정할 정관안을 확정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발기인은 (주)태영·윤세영 회장을 비롯하여 (주)건영 엄종일 사장, 대일건설 (주) 박희주 사장, 대한제분(주) 김종성 사장, 로켓트보일러공업(주) 김양수 사장, (주)일진 성낙준 사장, 한주흥신(주) 신영균 회장 등 7인이었다.

다음날인 11월 8일, 같은 장소에서 주주 간담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 참석한 주주들은 주금 납입 방법, 창립총회 개최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설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지 불과 1주일, 윤세영 회장은 그 짧은 기간에 한때 지배주주 선정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업주를 포함한 주주 31명을 일일이 설득하여 민방 설립에 동참시키는 친화력을 발휘했다.

마침내 1990년 11월 14일(수요일) 오후 2시, 태영빌딩 6층 회의장에서 (주)서울방송 창립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식순에 따라 정관을 통과시킨 뒤 총회 의장인 (주)태영 윤세영 회장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하고 출자 지분에 따라 임원진을 구성했다.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윤세영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방송의 존립 목적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선포하고, 독립성 확보, 공정성 유지, 공익성 추구를 경영 이념으로 제시했다. 군부의 강제 통폐합으로 증발되었던 민영방송이 1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땅에 방송이 시작된 지 63년, 민영방송이 처음 등장한 지 36년 만에, 방

송사 설립과 운영, 프로그램 편성을 비롯한 일체의 방송 활동이 명실공히 자율적으로 집행될 참된 민영방송 SBS가 탄생한 것이었다.

2.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서울방송기획단

SBS는 경륜있는 방송인들을 발빠르게 영입하여 경영진을 구성하고 각 분야 업무를 분담시켰다. 표재순 전무이사, 변건 관리담당 이사, 우석호 보도담당 이사, 심익섭 기술담당 이사, 김광수 편성제작담당 이사 등 초대 경영진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방송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새롭게 주어진 방송환경에서 포부를 펼치기 위해 스스로 SBS를 택했다.

윤세영 사장은 방송사, 신문사, 금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서 영입한 유능한 경력사원으로 창립 13일 만에 서울방송기획단을 가동했다. 그들은 발령 받자마자 낮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스카우트 작전에 나서고, 밤에는 사무실이나 인근 호텔 방에 둘러앉아 부서를 조직하고 예산을 짜고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부엌에 밝아오는 여명을 맞았다.

분장된 업무도 따로 없었고, 내 업무 아닌 것도 없었다. 기획단은 연말까지 34명으로 증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윤세영 사장은 일반 신입사원까지 일일이 직접 면담을 통해 선발하면서 서울방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지를 심어주었다.



SBS 창립총회 개막선언문
윤세영 (주)태영회장

기획단은 민방사업추진반이 작성하여 정부의 지배주주 선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법인 설립 및 경영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방송사 설립 작업에 들어가 선결과제인 경영 기본방침을 정한 데 이어 경영 목표, 편성·제작 목표, 보도 목표를 설정하고 기구 조직과 그에 따른 인력 편성 계획, 자금 운용 및 조달 계획, 영업 계획 등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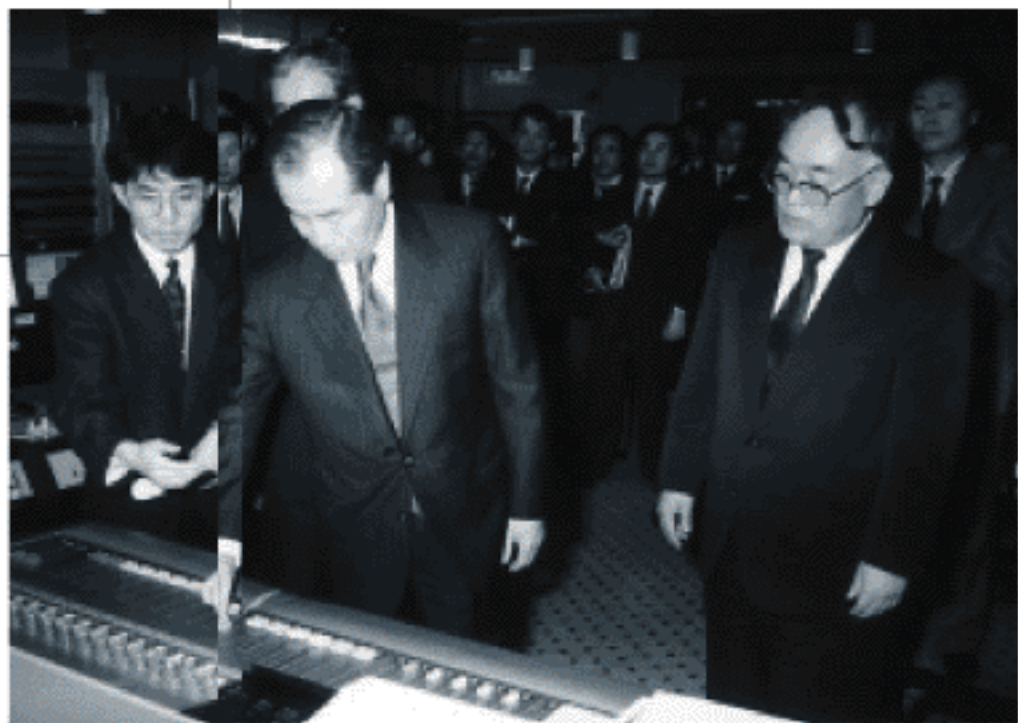
방송사 건물로는 (주)태영 사옥인 태영빌딩을 임차하여 개축, 사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시설 및 장비·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개업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도 수립했다. 1991년 10월까지 필요한 총 투자비용은 1600억 원으로서, 출자 자본금 1000억 원 외에 600억 원을 차입, 조달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어 최근의 광고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타 방송사의 예상 점유율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영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원년에는 적자로 출발하여 3년째인 1993년부터 흑자 경영으로 돌아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빠른 1992년부터 영업 수익이 흑자로 반전되었고 흑자 규모도 해마다 커졌다. 기획단의 면밀한 계획과 '소수 정예'로 특징되는 초기 SBS인들의 분골쇄신 덕택이었다.

기획단은 숨가쁘게 방송사 개설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허가 취득, 방송사 및 스튜디오 설비, 방송 장비 도입 및 설치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90년 12월 10일, 기획단은 공보

라디오 시험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는 윤세영 사장.



처에 채널 VHF6, 출력 50Kw로 TV방송 개설허가추천 신청서를 냈다. 가시청권은 서울, 경기 전역과 충남 온양 이북 지역으로 하여 약 432만 가구에 양질의 TV방송을 제공한다는 조건이었다. 12월 17일 공보처장관 추천을 거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방송국) 가허가를 받은 것은 12월 29일이었다. 지정 호출부호는 HLSQ TV였다. 기획단은 곧이어 라디오 개설 작업으로 손길을 돌렸다.

3. AM 라디오 방송으로 SBS 개국

"여기는 SBS 서울방송입니다."

1991년 7월로 계획했던 라디오 개국 일정을 3월로 앞당긴 것은 공보처가 KBS 라디오서울 이관 시기를 갑자기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민방 허용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라디오서울을 신설 민방에 넘겨주기로 결정해놓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 확보였다. 인력 확보가 시급하기는 1991년 10월 개국 예정인 TV쪽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개국에 필요한 인원은 PD 23명, 기자 40명, 엔지니어 15명, 아나운서 15명, 기타 5명 등 총 98명이었다. 1991년 1월 10일 기술 담당 실무자 9명이 첫 발령을 받

아 업무를 개시했다. 기술관리부 김경환, 현일범, TV기술부 서영철, 박영수, 이병열, 라디오기술부 김문중, 연구개발부 원종화, 송신소 변장부, 김영식 등이 초기 SBS 기술 분야를 정착시킨 공로자들이다.

기획단은 마이크로웨이브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기 위해 옥상과 가까운 10층에 라디오 연주소를 배치하고 스튜디오, 조정실, 사무 공간 배치 계획도 일단락지었다.

1991년 8월까지 자체 송신소를 건설하려던 계획도 3월부터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때 공보처에서 KBS 개봉송신소 임차 사용을 권해왔다.

KBS 채널 변경, KBS 노조의 반대 등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은 1991년 3월 9일이었다. 같은 날, 이미 신청해두었던 라디오 방송 가허가도 호출부호 HLSQ, 주파수 792KHz, 출력 50Kw로 발부되었다.

기술팀은 연주소를 비롯하여 방송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서둘렀다. 건설회사 사옥을 방송에 적합한 공간으로 개조하는 한편, 각종 장비가 도착하는 대로 병행 설치를 진행하여 모든 장비가 설치 완료된 것은 라디오 정규 방송을 개시한 3월 20일이었다. 집과 가족을 잇은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이때 도입, 설치했던 조정실의 송출 장비들은 모두가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 세계 최신키종이었다. 연주소에는 모두 167종, 723대의 장비가 도입, 설치되었다.

당초 방송계에서는 SBS의 라디오 및 TV 개국 일정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무모해 보이는 계

획을 오차 없이 마무리한 배경에는 각계에서 모여든 초기 SBS 역군들의 발군의 열정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SBS는 3월 11일부터 10일간 시험방송을 가동한 후 3월 20일 정규방송을 개시하기로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청취자들에게 참신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차별화된 정규방송 편성 계획에 착수했다. 청취자들에게 빠르고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연령층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방송 조기 정착의 열쇠였다.

1991년 3월 11일 오후 5시, 첫 시험방송이 시작됐다. 윤세영 사장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이 라디오 주조정실에서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렁찬 애국가에 이어 SBS의 고고성(呱呱聲)이 전파를 타고 방방곡곡으로 흘러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자리한 SBS 서울방송입니다. 1991년 3월 11일 오후 다섯시를 기해 역사적인 시험방송의 첫 전파를 발사하게 된 SBS 서울방송은 호출부호 HLSQ, 중파 792KHz, 출력 50Kw로 매일 아침 다섯시부터 다음날 새벽 두시까지 스물 한 시간 동안 방송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91년 3월 20일, 온 국민과 국내외 언론이 주시하는 가운데 SBS 개국 순간이 다가왔다. 오후 5시를 알리는 시보와 동시에 윤세영 사장이 라디오 주조정실의 큐 버튼을 눌렀다.

이 나라 언론사(言論史)에 중대한 분기점을 이루는 새



사내외 관계자들(위)한 가운데 열린 SBS개국 쉼파 송출식.

로운 민영방송 SBS가 힘차게 출항하는 순간이었다. 라디오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SBS는 실질적으로 방송사 대열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다. 개국 식장을 가득 메운 국회, 정부, 방송계의 초청 인사들, SBS 주주 및 임직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SBS의 밝고 곧은 미래를 축원

했다. 윤세영 사장은 녹음된 개국 인사말에서 '다가오는 21세기에 펼쳐질 인류 문명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그 첫째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총아인 방송매체야말로 그 임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설정한 민영방송 SBS와 언론인 윤세영의

기쁨과 사랑을 심어주는 축시

시인 박재삼

오늘
이 싱그럽게 새 잎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3월 20일
좋은 봄날을 택하여
서울방송이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부드럽게, 아름다운 소리로
국민의 귀에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심어주기 시작했으니
이 건강한 소리가
드디어는
건강한 사회로 이끄는 데
숨어서 견인차 노릇을 담당하기에 충분하고나
이렇게
없는 듯이 하고 있는 이 방송이
다만 지키고 있는 한 가지
바르고 빠른 것이 우리의 귀를 뚫게 하고
밝은 내일을 여는 데
더없이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부신 앞날에
더욱 희망과 포부만을 키워주는 데
모자람이 없어라

세상은 언제나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뒤섞이기 마련이지만

다만 오늘
새로운 소리 하나에
모든 뜻을 싣고 울려나가는
우리의 서울방송이
겨레 위에 우뚝 서서 창창한 미래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신바람을 동반하는
그런 방송으로
드디어 우리의 사랑을 받게 하여라
그리하여 이룬 것은
우리의 귀에 더 없는 기쁨을 주고
그것 없이는 못 사는
사랑을 안겨주는
그 사명을 한 시도 잊지 말고
온 국민의 귀에 나직이
언제나 속삭이듯이 울려와서
더 빛나는 우리의 문화를
하나하나 매만지고 가꾸어갈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서울방송이 되기에
늘 충전하는 그런 방송이 되게 하라
아아,
서울방송 만세를
다 함께
마음 속으로 부르게 하라!

위상과 소명(召命)을 내외에 엄숙하게 선포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 지난 시절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이기도 했다.

뒤를 이어 성우 양지운의 낭송으로 서정시인 박재삼님의 축시가 헌정(獻呈)되었다. 역시 시인인 박건삼 라디오 제작2부장이 삼고초려 끝에 얻어낸 귀한 작품이었다. 시인은 새 민영방송 SBS의 앞날에 각별한 기대와 축원을 보냈다.

SBS 라디오의 새 모습, 편성 차별화

SBS 라디오는 기존 채널에 익숙한 청취자들을 상대로 선발 방송사와 경쟁하면서도 공익 추구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공익 추구는 SBS의 설립 이념이었다. 새 민방의 참신한 방송을 기다려온 청취자들의 기대치 또한 항상 염두에 뒤야 할 부담이었다.

신설 방송사로서 청취자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은 보도의 공정성 유지다. 지난 시절 우리 방송은 권력 편향적인 불공정 보도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아픈 상흔을 가지고 있다. SBS가 창사 직후인 1990년 12월, 보도국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양대 방송사와 4대 중앙 일간지 경력 기자들을 대거 영입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편집, 영상취재 등 보도국 6개 부서를 구성한 SBS는 강도 높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들 보도요원들에게 엄정한 취재, 보도활동을 요구했다.

첫 뉴스는 1991년 3월 21일 정오에 방송됐다. 바로 전날 개국 방송에 이어 손석기 아나운서가 첫 뉴스를 보도하는

기록을 남겼다. 「퀴터뉴스」와 「뉴스센터」는 그 자체가 보도 부문의 혁신적인 차별화 전략이었다. 「퀴터뉴스」는 정시 뉴스를 포함하여 매 15분마다 신속하고 다양한 생활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현대인의 바쁜 생활 패턴에 사이클을 맞춰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 이 「퀴터뉴스」 덕분에 SBS는 정시 뉴스만 방송하는 기존 방송사보다 먼저 소련 쿠데타 발생 등 세기적인 사건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

「뉴스센터」는 취재 영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성공한 독특한 시스템이었다.

교양 프로그램은 계층별로 생활 형태나 관심사가 다른 점에 착안, 내용과 방송 시간대를 차별화했다. 일찍 일어나는 노인들의 생활 습성에 맞춰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심사를 다룬 「마음은 언제나 청춘」, 생활 경제를 쉽게 해설한 「호주머니 경제학」, 중진 정치인들의 쟁점 토론 「10분 공방」, 여성들의 생활 및 문화 정보를 다룬 「그대 이름은 여성」 등은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교양물의 수준을 높인 프로그램이었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 위상을 점검해 본 「지구촌 24시」, 현장을 찾아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한 「SBS 이동 스튜디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출발! 성공시대」, 한양 천도 600년을 기념하여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한 「서울 이야기」, 젊은이들의 이상과 고민을 나누는 「기쁜 우리 젊은 날」, 원로들의 인생 역정을 들어보는 「0시에 만납시다」 등도 SBS의 차별화 전략이 일찍 뿌리를 내린 프로그램들이었다.

교양 프로그램 조기 정착에는 각 분야의 전문 직업인

을 진행자로 영입한 전략도 한몫 했다. SBS의 이 시도는 타 방송사에도 영향을 끼쳐 교양 프로그램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곧 이어 전문MC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

오락 프로그램의 목표는 건강한 웃음 추구였다. 진행자로는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재미를 더했다. 「가요 드라이브」, 「유쾌한 가족 퀴즈」, 「가요 콩트」, 「라디오 마당극」 등이 연예인을 앞세워 청취자 확보에 성공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었다. SBS 라디오는 출범부터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내용으로 타 방송사와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방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민방 허용을 반대하던 소수 여론을 잠재웠다.

1993년 7월 1일, 50Kw 고효율 고평송신소 준공으로 SBS 라디오는 우리나라에 AM 스테레오시대를 열었다.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2만 4000여 평 대지에 건립한 SBS 고평송신소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설치하여 청취자들에게 고품질 입체음향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무인자동화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매년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AM 스테레오방송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국내에는 SBS가 처음으로 입하여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기술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AM 스테레오방송은 FM방송에 비해 산이나 고층 건물에 의한 전파 방해를 적게 받기 때문에 산간벽지는 물론 낚시터나 달리는 차안에도 한결 선명한 방송을 전달할 수 있으며, 스포츠 중계, 드라마, 음악 등을 방송할 때 음질을 높이

고 현장감을 강화해준다. 이로써 SBS는 KBS 개봉송신소 임차 시절을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종합 방송사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SBS 라디오는 우리나라 AM 라디오로서는 최초로 1996년 3월 1일부터 24시간 종일 방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야간 활동 인구 증가 등 국민 생활 주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포석의 일환이었다. 이로써 SBS 라디오는 청취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유익한 정보와 건강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깨끗한 음향취급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고평송신소 기공식